

성도의 교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팀'과 함께 환영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시다.
2. 다음 주일 (6/21)은 Father's Day 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짐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 가짐과 자세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녀들 앞에 부모된 우리가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4. 온타리오 주 정부가 지난 12 일(금)부터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30% 안에서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1-2 주간 상황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 교회 학교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아동부/중고등부: 정예은 선생님, 청년부: 김윤규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6. 목회자 칼럼 (53 회)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7.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8.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유, 교우들의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국의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118 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답: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¹

1) 약 1:17; 마 6:33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교회 학교예배
오후 12:30	저녁 7:00	오전 6:00 (월-금)	오후 12:30
☎ 647-850-9191 Cell: 647-208-9191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정창송, 교육목사: 김윤규	

제 20 - 24 호

2020.06.14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 회
밀톤 한인 장로 교회

Mil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0 Nipissing Road, Unit 8, Milton, ON. L9T 5B2 www.miltonkpc.com

주일 예배	오후 12:3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9 장 (통 53)	다함께
*교독문	103. 나라사랑 (5)/314 장 1 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 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찬양의 시간		다함께
*성경 봉독	히브리서 11:30	인도자
설 교	이스라엘의 믿음 (2) (The faith of Israel (2))	정창송 목사
*찬 송	546 장 (통 399)	다함께
*축 도		정창송 목사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나리며, 복음을 전하는 밀톤 한인 장로 교회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히 11:30)

히 11 장, 믿음장 강해 18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에 이어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년 광야 생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최초로 정복한 여리고 성 함락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6 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 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기적적으로 요단 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 가나안에 있던 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민 13:28, 신 1:28). 그리고 여호수아 6:1 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굳게 닫혔고”라는 표현은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공략 불가능의 성으로 보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 성 점령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불가능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0 절)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수 6:2 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입니다. 수 6:3-5 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 주위를 한 바퀴씩 6 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 일째 되는 날은 7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수 6:10)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이해가 안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돌기만 하는 정신나간,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행위를 통해 여리고 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왕이면 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것이지 왜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실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순종이라면 믿음 없는 사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 이성을 초월한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 세에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말하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은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3 바퀴 다 돌았을 때 이루어 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그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면 됩니다. 믿음은 침묵하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근본적 이유: 본문은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혀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흥해가 갈라진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 6:8-9 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돈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불며 앞에서 진행하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 것을 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심판과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가 없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악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의 예표입니다. 40 년 전 그들은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 앞에 여리고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